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철학자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고통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든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어떤 인간도 죽음으로부터 안전한 거처를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삶이 실제로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쾌락주의 내에서 행복이란 몸에 괴로움이 없고 영혼에 동요도 없는 정적인 상태로 정의된다.

전통적 인식론에 따르면 쾌락은 즐거움을 유발하기에 좋은 것이고 고통은 괴롭기에 나쁜 것인데, 이는 각각 선과 악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반적 생각’에서 출발하여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악이 아님을 보인다. 유물론적 세계관을 믿었던 그는 인간이 영혼과 신체의 결합을 통해 구성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믿음을 전제하면 영혼은 신체에 퍼져있는 미세한 입자이고, 신체는 그러한 영혼을 담는 물질적 용기이다. 또한 신체와 달리 영혼은 감각 능력이 깃들어 있지만 감각의 원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이루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과정을 구성요소의 분해로 이해한다. 집합체로서 인간이 와해되면 생명 유지와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영혼이 흩어지므로 감각은 없어진다. 따라서 ㉡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다. 또한 그에 따르면 어떤 것이 쾌락을 더 많이 산출하는 한 그것은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요컨대 선악 판단은 시간 흐름에 따른 쾌고 간 상호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 감각될 수 없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다. 이처럼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므로 죽음은 살아 있지 않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한편, 인간은 생존해 있을 때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음 닥쳤을 때는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두 상태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죽음과 삶이 시간적 상호배제 관계에 있다면 죽음은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에게 고통이나 악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에피쿠로스는 말한다.

그런데 ㉣ 죽음은 살아 있지 않은 상태의 마감이기에 그것을 악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마치 삼수를 몰래 준비하는 수험생이 부모님에게 그러한 사실이 들켜 미래의 삶이 제공할 선의 향유가 박탈된다면 죽음을 악으로 여기고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죽음을 삶의 중단으로 바라보는 박탈론자들의 논지이다. 여기서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옹호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삶의 중단, 즉 박탈이 결핍과 같은 고통과 달리 감각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필연적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욕망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결핍을 초래되는 경우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무언가를 욕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조건이 요구된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시간, 다시 말해 미래의 삶이다. 결국 인간은 미래의 삶에 대한 결핍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불가능하기에 고통을 겪게 된다. 그렇다면 ㉤ 결핍에 의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당장 충족 가능한 욕망에 집중하는 것이다. 먼 미래의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고, 통상 가지기 쉽지 않은 욕망이다. 가령 사치스러운 식사를 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 대상을 소유하기가 어려워 그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초래하지만 간소한 식사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관점을 주장한 키처드는 인간을 필수적 욕망에 한정시키는 방법으로 ‘쾌락 계산법’을 제안한다. 인간이 어떤 욕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할 시점부터 그것을 누린 후까지를 고려하여 얼마나 많은 쾌락을 가져다주는지 계산하자는 것이다.

1. 에피쿠로스가 동의할 수 있는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삶이 안정해질 때 비로소 죽음이 도래한다.
- ② 어떤 죽음은 나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③ 영혼은 신체와 달리 물질적 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어떤 것 좋은 것으로 판별되기 위해서는 나쁜 것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 ⑤ 살아있는 인간이 죽었을 때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살아 있지 않은 상태로서의 죽음이 고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가리킨다.
- ② ㉡은 영혼만으로 감각을 느낄 수 없다는 유물론적 믿음을 가정할 때 얻을 수 있는 결론을 가리킨다.
- ③ ㉢은 선을 쾌락으로, 악을 고통으로 규정짓는 일반적 생각을 부정하지 않는 생각을 가리킨다.
- ④ ㉣은 ㉡과 ㉢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반면, ㉤은 ㉠에 대한 반박을 가리킨다.
- ⑤ ㉤은 ㉣이라는 의문에 대한 해답 중 하나이자 동시에 ㉠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킨다.

3. 윗글에 제시된 입장들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피쿠로스는 현재 살아있는 인간에게 살아 있지 않은 상태인 죽음이 악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비판받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마감시키는 죽음이 선만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악까지 제거하기 때문에 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박탈론자의 에피쿠로스 비판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 ③ 인간이 죽지 않은 존재가 되어 미래의 삶을 확실하게 보장받는다면 사치스러운 욕망을 지향해도 된다고 키처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박탈론자는 인간의 쾌락과 고통이 주관적이고 정량화하기 어렵고 미래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쾌고가 단순한 숫자로 환원되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 ⑤ 단순한 생리적 필요나 기본적인 쾌락만으로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성장이나 장기적 행복감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키처드는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